

그 여름, 복날에

이길원

바로 그 대추나무다

설핏 부는 바람에 곤두박질치던 내 연(鳶)을

관처럼 쓰고 있던 그 대추나무다

검둥이는 목이 비끌린채 매를 맞고 있었다

누군가가 내게 목소리라도 높이면

으르렁 기세를 세우던 목을

수천번도 더 쓰다듬었던 목덜미를

머슴들은 매달았다

학교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교문을 나서는 내게

바지가랑이 잡으며 꼬리치던 검둥이가

그날따라 보이지 않더니

거기 매달려 사정없이 맞고 있었다

누군가가 울며 몸부림치는 내 어깨를 짓눌렀고

끓은 눈물을 푹푹 흘리는 검둥이는

그런 나를 바라보며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혼절하고 말았다. 매달린 검둥이처럼

오늘같은 복날이면

친구들은

뛰는 메뚜기처럼 젓가락을 움직이는데

40년전 검둥이 눈물이나 떠올리며

내 젓가락은 동그라미나 그린다

<종교컬럼>

오윤명 목사
캘거리 생수 교회 담임



복을 유통하는 삶



분단 왕국 중의 하나인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도 130년을 더 지탱하다가 망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교훈을 배워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유다는, 비록 북이스라엘이 망했지만, 자신들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세우신 다윗 왕의 자손들이 여전히 유다를 다스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사실을 굳게 붙잡고 있던 유다는, 회개하거나 삶을 돌아키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살다가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복이 그들에게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작용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피력한다. 이방민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죄 아래 있기에,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유대인의 죄는 무엇인가? 당연히 하나님을 떠났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그들의 죄이다. 그런데 바울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유대인의 죄 중의 하나는 왜곡(비틀어 버림)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 혈통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그들에게는 할례라는 의식도 주어졌다. 할례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입문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유대인 공동체에게는 율법도 주어졌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복이었다. 그런데 그 복이 유대인들을 망치고 말았다. 그릇된 자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근거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예를 들어, 율법과 관계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정체성은 이런 것이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로마서 2장 17-20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무엇이 가장 좋은(선한) 것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맹인(이방인)의 인도자, 어둠(이방인)의 빛, 어리석은 자(이방인)의 교사, 어린 아이(이방인)의 선생.' 이것이 그들 스스로가 가진 자기 정체성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유대인들)과 이방인은 애초에 다른 등급의 사람이라고 여겼다. 자신들이야말로 무언가를 아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인도자이며 선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자부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사실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기반하여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의식으로서의 할례와, 언약 백성의 삶의 기준으로서의 율법, 전혀 의도하지 않게 다른 방향으로 유대인들에게 작용하게 된 것이다. 그런 것들이 잘못된 자의식의 근거가 되었으며, 이방인에 대한 우월감을 확인시켜주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죄가 하는 일이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하는 일이다. 죄는 진리를 거짓으로, 생명을 죽음으로, 참을 거짓으로, 본질을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행위나 의식으로 왜곡시킨다. 특별히 죄가 만들어내는 왜곡 중의 하나는 이기적인 왜곡이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주신 것들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도록 만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주신 것들을,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돋보이는데 사용하도록 만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창세기 12장 2-3절/ 개역성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단순히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복덩어리 자체(복의 근원)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대적할 수 없었다.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하셨다. '이런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다. 그런데 이 구절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이렇게 이어진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많은 특권(복)들은 그들 자신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누라고, 유통시키라고, 세상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것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아마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살지 않으면 죄가 우리에게 그런 힘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부르신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가 남게 하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다. 시간, 건강, 재능, 경험 등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는 이웃과 세상을 섬길 수 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보게 해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복을 유통함으로써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소망해 본다.